

민법(친족상속법 제외)<필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학교법인 A(그 정관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의 대표자 甲은 내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학교시설 확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甲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 후 甲은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위 학교시설 확충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A의 기본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여 점유를 이전해 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때 甲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乙이 위 3억 원의 대여 당시 甲의 배임 의도에 대해 ① 악의였던 경우, ② 선의·경과실이었던 경우, ③ 선의·무과실이었던 경우로 나누어 乙이 A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을 검토하시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주류적 관례에 따른다) (28점)

2) A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반환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시오. (12점)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 2 문. 甲은 1990. 1. 2. 乙로부터 乙 소유의 A토지를 3백만 원에 매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루고 있던 중 1990. 4. 30. 사망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甲이 A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준 丁에게 A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乙은 2001. 2. 1. 소유권등기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A토지를 戊에게 3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戊는 2015. 1. 2. A토지를 己에게 9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戊는 甲과 乙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A토지의 현황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총 30점)

- 1) 己가 2015. 1. 6. 매매에 기한 소유권취득을 근거로 丙과 丁을 상대로 A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丙과 丁은 토지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 2) 丙이 己가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하였다면, 乙 또는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10점)

제 3 문. 甲은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의 관리를 위해 乙을 고용하였다. 丙은 이 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의 휴지통 부근에 폐신문지와 종이박스를 방치해 두고 있었다. 방문객이 위 건물의 3층 화장실에서 피다 버린 담배꽂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폐신문지와 종이 박스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丙의 직원 丁이 화상을 입었다. 위 건물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乙이 오작동을 귀찮아 한 나머지 이를 꺼두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총 30점)

- 1) 丁은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경우 丙은 어떤 주장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10점)
- 2) 丁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합계 5천만 원인데, 丁이 甲과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제750조를 근거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乙이 丁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면, 甲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10점)
- 3) 丁이 의사인 戊로부터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戊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丁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